

나의 유학기

이신건 (신학박사, 서울신학대학 강사)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정의여자 중학교에서 교목의 일을 맡아 보람있게 일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져만 갔다. 일찍부터 거의 독학하면서 터득해 온 독일어실력을 이제 학문연마에 활용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을 지고 독일유학의 문을 두드렸다.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유학 중이신 김희성 목사님으로부터 2장의 입학원서가 날라왔다. 밤늦도록 끙끙거리며 작성한 서류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튀빙엔(Tübingen) 대학에 보내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먼저 입학허가서가 왔다. 그러나 튀빙엔 대학의 수속은 까다롭고 번거롭더니 여전이 회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향했다. 김목사님의 따뜻한 환송과 배려의 도움을 입어 등록한 후 어학과정에 들어갔고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지역의 조그만 한인(교포)교회도 맡았다. 독일어 시험은 사전의 준비 탓으로 무난히 통과했다. 그러나 정작 좋은 강의를 듣지 못하고 이젠 튀빙엔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쉬웠다.

이미 한국에서부터 보낸 편지를 통하여

지도의사를 타진했던 몰트만 교수의 승락 아래 입학수속은 쉽게 이루어졌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의 궤도에 올랐다. 그분의 책으로 초청받아 처음으로 찾아가셨을 땐 위축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분은 온화한 태도로 마음을 풀어 주셨다. 먼저 한국말로 기도한 후 나의 경력, 학문적 관심, 교단역사 등을 들려 주었다. 먼저 테스트 논문의 과제가 주어졌다. 10개월 동안이나 끙끙거리며 생소한 과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라틴어 수업에도 들어가 더 많은 고전어실력을 쌓았다. 나중에 제출한 과제(아우구스부르크 고백신조의 교회론과 바르멘선언의 교회론의 비교연구)는 지도교수를 흡족케 한 것 같았다. 이로써 본격적인 학위논문외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 칼 바르트의 교회론에 관해 연구하면서 지도교수의 강의와 유익한 강의를 듣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독일대학의 강의는 평장한 수준이었고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장벽의 탓으로 처음엔 답답했으나 차츰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강의에 임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열의는 매우 진지했다.



내가 유독 칼 바르트의 신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미 생존 당시에 현대의 교부라고 일컬어질 만큼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신학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의 신학에서는 과거의 오랜 전통과 최근의 신학이 비판적으로 수렴되고 후대의 신학적 기후를 결정짓는 수많은 신학성향들이 파생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현대신학에 이르는 길에 버티어 서 있는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그것을 깨물든지 부수든지 혹은 씹어지고 가늘지 할 수 밖에 없고 결코 비껴 갈 수는 없는 것이 되었다. 이미 한국에서 연세인합신학대학원에서 독일어 원전으로 강강거리며 그의 심원방대한 신학의 맛을 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으로 그의 저술들을 대하자 그의 문체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했으며 그가 서있던 상황을 거의 몰랐던 나로서 그의 진의를 깨우쳐가는 과정은 정말 괴롭고 힘든 투쟁이었다. 차라리 방대한 '교회교의학'에 이르자 안도의 숨을 내쉬 수 있었다. 그의 박력 있고 웅장한 체계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의 신학은 독특한 매력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Worms의 Dreifaltigkeitskirche (마틴·루터가 종교재판 받던 교회) 앞에서.

물론 바르트 자신이 말한대로 누구도 '바르티안' (Barthian)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배운 값진 신학적 유산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교회를 사랑했다. 그의 신학은 때때로 교회비판적·파괴적인 발언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 안의,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그의 신학에 있어서 교회는 신학항목의 뒤에서야 비로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적 실존이 서 있는 근거였으며 교회는 항상 꾸준히 그의 신학적 관심의 전면으로 부각되었다는 점. (2)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



J. Mollmann 교수(지도교수)는 가끔 나와
우리가족을 초청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를 나누어주었다.

어떤 계시중심의 신학으로서 모든 내용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론으로써 해명·기초되고 제한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의 모든 신학적 발언이 돌아가는 회전축이었다. 그가 일평생 주장하려 했던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나타난 은총과 화해 및 사랑의 승리였다.

(3)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였다. 그는 추상적인 교회를 세우려 하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온전히 책임있게 행동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교회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신학을 보여 주려고 했다는 점. (4) 그는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았다. 교회사에서 그와 같이 방대한 양의 체계를 세운 신학자가 없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신학을 완벽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의 견해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았고 그의 방대한 교의학도 천상에서는 휴식감보다 못한 폐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일생을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그의 후진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잊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신학에서 취할 수 없는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취할 점이 더 많았음을 배우게 된 나로서 항상 그의 도전에 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본질적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바르트의 교회론의 발전과 형태' (논문제목)를 추적하다보니 어언 4년이 지났지만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끝내고 돌아와 교회와 상단에서 봉사하게 된 것에 뿌듯한 기쁨과 뜨거운 감사를 느껴마지 않는다.

1988. 3. 14.